

1. 다음은 ‘갑’시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실태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24년 공용자전거 A의 이용용도별 비중은 ‘여가·오락·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통근’, ‘친교’의 순이었다. ‘여가·오락·운동’과 ‘친교’의 비중은 2023년 대비 각각 증가했으나 ‘통근’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2024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학원’의 이용용도 비중이 가장 작았고, 그다음으로 ‘업무’, ‘쇼핑’의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쇼핑’의 비중이 가장 작았다.

공용자전거 A의 평균 이용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비중이 44.36%로 가장 컸고, 1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80% 이상이었다.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무거운 자전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대여소간 연계성 부족’, ‘잡은 고장’의 순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경량화 및 지속적인 자전거 품질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속대여 어려움’이나 ‘임시거치 불편’ 등도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향후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공용자전거와의 비교에서는 공용자전거 A ~ E 중 A가 만족도는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도는 3.7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보 기>

ㄱ. 2023 ~ 2024년 공용자전거 A의 이용용도별 비중 (단위: %)

이용 용도	여가·오락·운동	쇼핑	친교	업무	학원	통학	통근	기타
2023	34.69	4.38	12.60	6.85	5.40	10.80	18.42	6.86
2024	37.99	5.68	13.97	6.98	3.06	7.10	15.72	9.50

ㄴ. 공용자전거 A의 평균 이용시간별 비중

이용시간	비중 (%)
1시간 이상	16.67
30분 이상 1시간 미만	44.36
20분 이상 30분 미만	22.87
10분 이상 20분 미만	11.89
10분 미만	4.21

ㄷ.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시 불편사항별 비중 (단위: %)

불편사항	무거운 자전거	임시거치 불편	잡은 고장	신속대여 어려움	대여소간 연계성 부족	불편 없음	기타
비중	24.50	8.78	19.36	11.88	13.89	5.67	15.92

ㄹ. 공용자전거 A ~ E의 인지도 및 만족도 (단위: 점)

공용자전거	인지도	만족도
A	3.7	4.2
B	4.2	3.5
C	2.8	3.3
D	1.5	4.1
E	3.3	2.9

※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 다음 <표>는 2022 ~ 2024년 ‘갑’국의 도로종류 및 차량유형별 교통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A ~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2 ~ 2024년 도로종류 및 차량유형별 교통량 (단위: 대/일)

연도		2022	2023	2024
도로종류	차량유형			
고속국도	소계	48,225	51,004	52,116
	승용차	33,315	35,430	36,217
	버스	727	738	1,068
	화물차	14,183	14,836	14,831
일반국도	소계	13,093	13,173	13,262
	승용차	10,021	10,149	10,248
	버스	184	181	189
	화물차	2,888	2,843	2,825
지방도	소계	5,527	5,543	5,340
	승용차	4,008	4,098	3,945
	버스	114	103	120
	화물차	1,405	1,342	1,275
전체		66,845	69,720	70,718

- ※ 1) 교통량은 일평균값임.
2) ‘갑’국의 도로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만 구분됨.
3) ‘갑’국의 차량유형은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만 구분됨.

<보고서>

2023년 모든 도로종류에서 전년에 비해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고속국도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3년 차량유형별 교통량은 모든 도로종류에서 A가 가장 적었다.

2024년 교통량을 보면, 전체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도로종류별 교통량 중 승용차의 비중은 고속국도가 일반국도보다 B. 한편, 2024년 지방도 교통량 중 버스의 비중은 전년 대비 C하였다.

- A

B

C
- ① 버스

작았다

증가

② 버스

작았다

감소

③ 버스

컸다

증가

④ 승용차

컸다

증가

⑤ 승용차

컸다

감소

3. 다음 <표>는 2021 ~ 2023년 정부의 재원별,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정부의 재원별 재정지출 현황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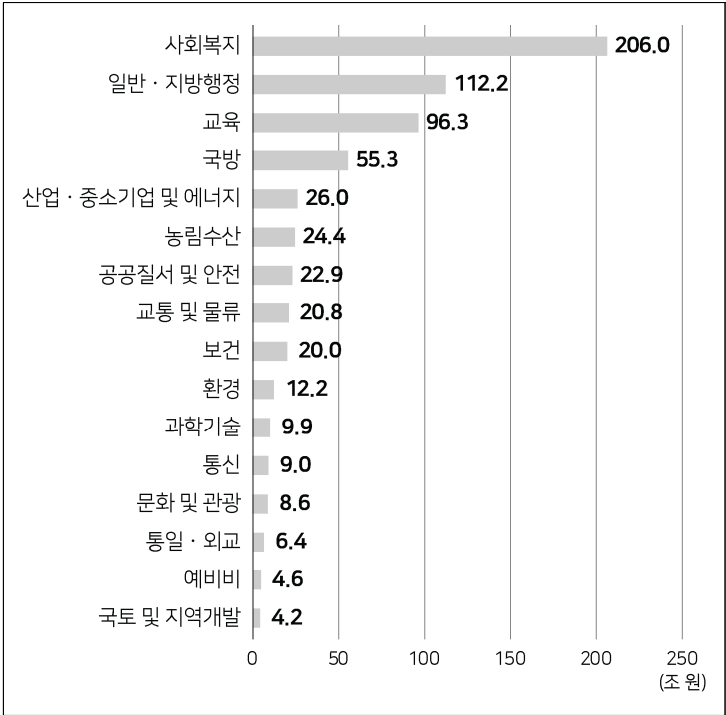
재원		연도	2021	2022	2023
예산	일반회계		314.8	350.2	369.4
	특별회계		60.2	62.8	71.6
	소계		375.0	413.0	441.1
기금			182.9	194.6	197.7
계			557.9	607.7	638.8

<표 2>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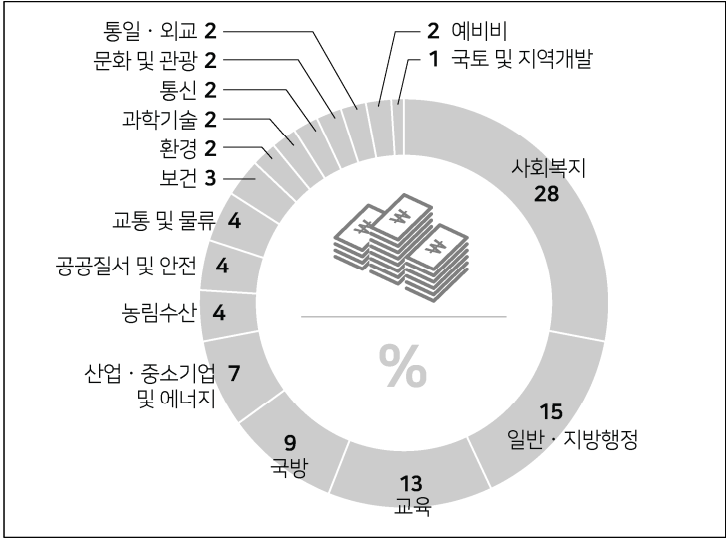
분야	연도	2021	2022	2023
사회복지		185.0	195.0	206.0
일반·지방행정		84.7	98.1	112.2
교육		71.2	84.2	96.3
국방		51.4	53.0	5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6	31.3	26.0
농림수산		22.7	23.7	24.4
공공질서 및 안전		22.3	22.3	22.9
교통 및 물류		21.4	22.8	20.8
보건		14.7	22.7	20.0
환경		10.6	11.9	12.2
과학기술		9.0	9.6	9.9
통신		8.4	9.0	9.0
문화 및 관광		8.5	9.1	8.6
통일·외교		5.7	6.0	6.4
예비비		8.6	3.9	4.6
국토 및 지역개발		5.1	5.1	4.2
계		557.9	607.7	638.8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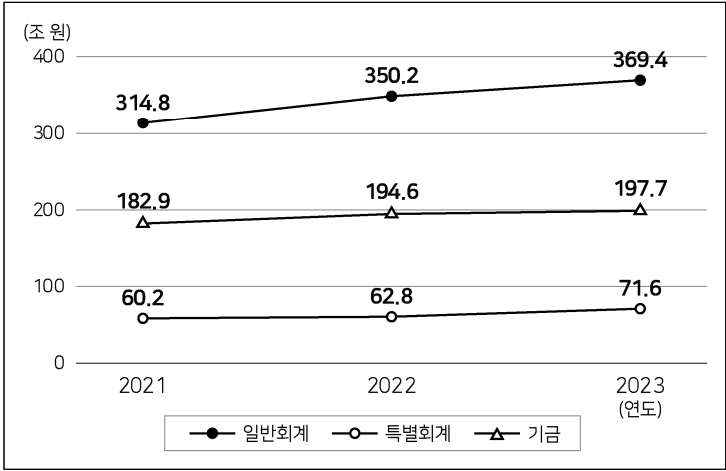
ㄱ. 2023년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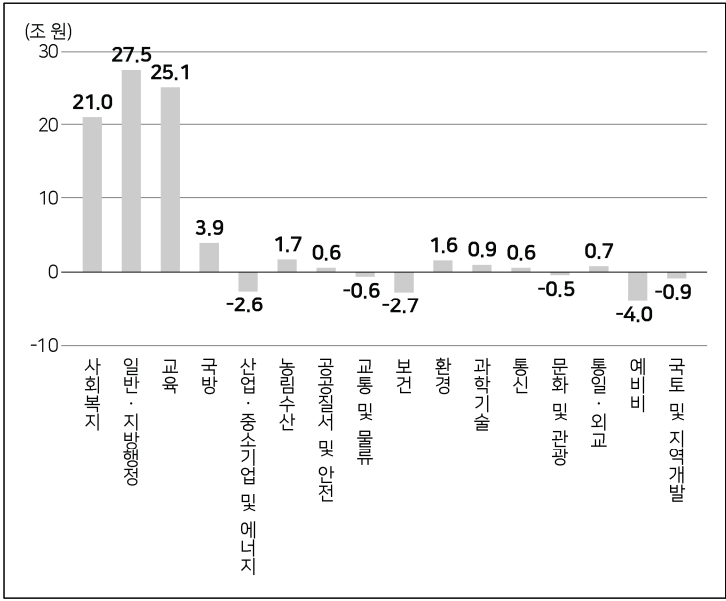
ㄴ. 2021년 분야별 재정지출 구성비



ㄷ. 연도별 재원별 재정지출 규모



ㄹ. 2021년 대비 2023년 분야별 재정지출 증가 규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다음 <표>는 2011 ~ 2024년 중부 및 남부 지방의 장마 시작일, 종료일, 기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1 ~ 2024년 중부 및 남부 지방의 장마 시작일, 종료일, 기간
(단위: 일)

연도	중부 지방			남부 지방		
	시작일 (월/일)	종료일 (월/일)	기간	시작일 (월/일)	종료일 (월/일)	기간
2011	6/22	7/17	26	6/10	7/10	31
2012	6/29	7/17	19	6/18	7/17	30
2013	6/17	8/4	49	6/18	8/2	46
2014	7/2	()	28	7/2	()	28
2015	6/25	()	35	6/24	()	36
2016	6/24	7/30	37	6/18	7/16	29
2017	()	()	29	6/28	7/29	32
2018	6/26	7/11	16	6/26	7/9	14
2019	6/26	7/29	34	6/26	7/30	35
2020	6/24	8/16	54	6/24	7/31	38
2021	7/3	7/19	17	7/3	7/19	17
2022	6/23	7/25	33	6/23	7/26	34
2023	6/26	7/26	31	6/25	7/27	33
2024	6/29	7/27	29	6/22	7/27	36

※ 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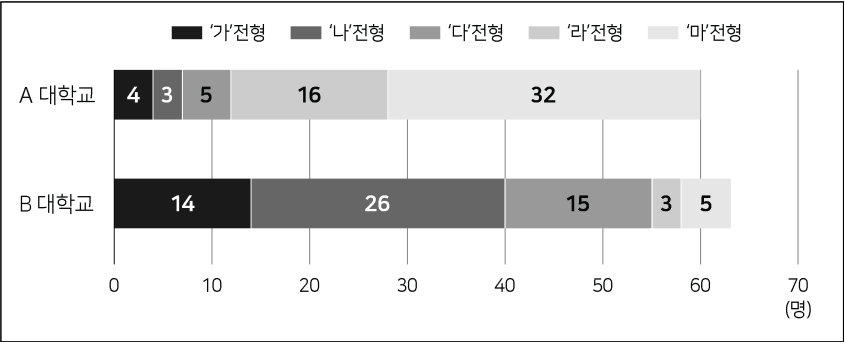
<보 기>

- ㄱ.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 모두 2020년이다.
- ㄴ. 같은 해에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장마 기간이 각각 40일 이상이었던 해는 한 번뿐이다.
- ㄷ. 2014년과 2017년 중부 지방의 장마 종료일이 같다면, 2017년 중부 지방의 장마는 6월에 시작되었다.
- ㄹ. 2015년 장마 종료일은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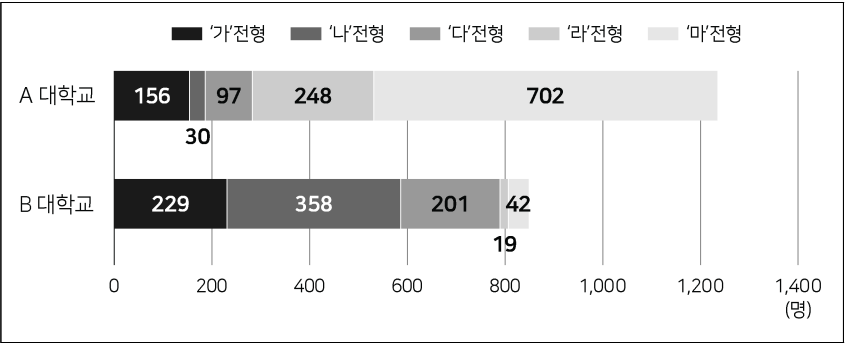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다음 <그림>은 2024년 A, B대학교의 입학전형별 ‘갑’전공 모집인원 및 지원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1> 입학전형별 ‘갑’전공 모집인원



<그림 2> 입학전형별 ‘갑’전공 지원자 수



※ 경쟁률 = $\frac{\text{지원자 수}}{\text{모집인원}}$

<보고서>

2024년 A, B대학교 ‘갑’전공의 모집인원 및 지원자 수를 조사하였다. ① 모집인원은 B 대학교가 A 대학교보다 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 지원자 수는 A 대학교가 B 대학교의 1.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두 대학교에서 ‘갑’전공의 입학전형은 ‘가’, ‘나’, ‘다’, ‘라’, ‘마’전형으로만 구성되는데, ③ A, B 대학교는 각각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 지원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갑’전공 전체 경쟁률의 경우, A 대학교는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의 20배 이상으로 B 대학교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별로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⑤ ‘마’전형의 경우, A 대학교에서는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으나, B 대학교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다음은 조선의 무과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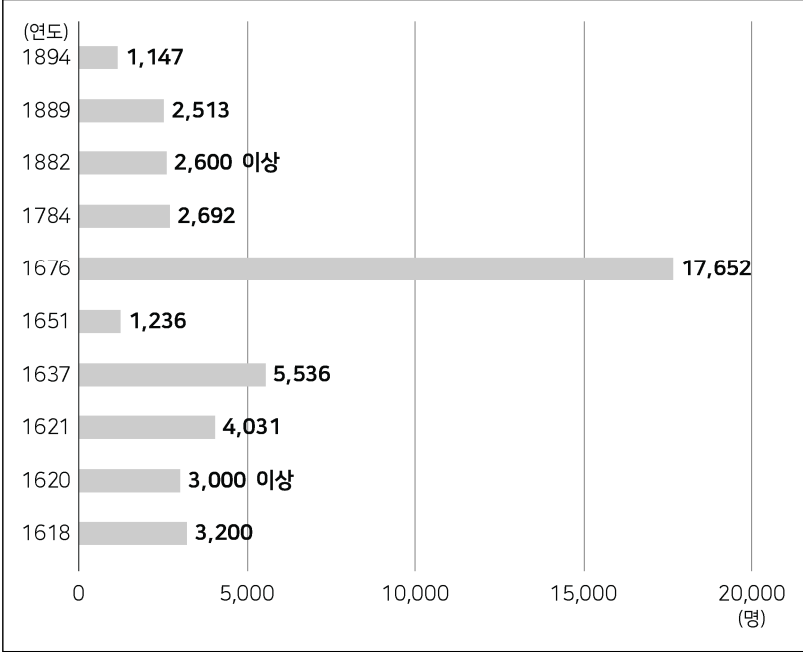
조선 중기 이후 세제와 군역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 군사조직이 효율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과는 자주 시행되었고, 실제 필요한 무관보다 많은 급제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과제도가 존재했던 1402년부터 1894년까지 천 명 이상의 무과급제자를 배출한 연도수는 14개였고, 그중 10개 연도가 1618년부터 1894년 사이였다. 특히 1676년에는 17,652명의 무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조선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 무과급제자를 선발하였는데 급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시험 시행 간격을 짧게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15년이나 16년에 한 번씩 시행했던 증광시는 조선 중기 이후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시행하였으며, 별시의 시행도 잦았다. 특히 정시와 알성시, 외방별시는 조선 초기보다 후기에 더욱 많이 시행되었는데, 1608년부터 1894년 사이에 정시 194회, 알성시 56회, 외방별시 32회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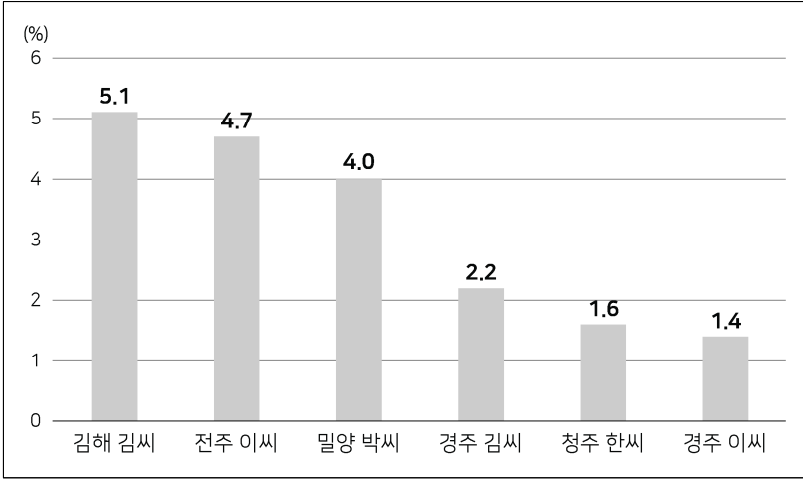
1608 ~ 1894년 동안 무과급제자의 주요 성관 비중을 살펴보면, 김해 김씨 5.1 %, 전주 이씨 4.7 %, 밀양 박씨 4.0 %, 경주 김씨 2.2 % 등이었다. 또한, 광해군 이후 무과급제자의 출신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철종 재위 기간까지 출신지역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한양 또는 경기였고, 전라 출신 무과급제자의 비중은 효종 재위 기간에는 19.6 %였으나 이후 감소하다 헌종 재위 기간부터 다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시기 무과급제 자체는 관직 임용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무관이 된 무과급제자는 한양과 그 주변에 기반을 둔 저명 무인 가문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무과급제자는 점차 주요 고위관직의 문관으로 예상외의 승진을 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군영의 장군직을 문과급제자가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고종 재위 기간에는 신임 군영 장군 33명 중 문과급제자 출신이 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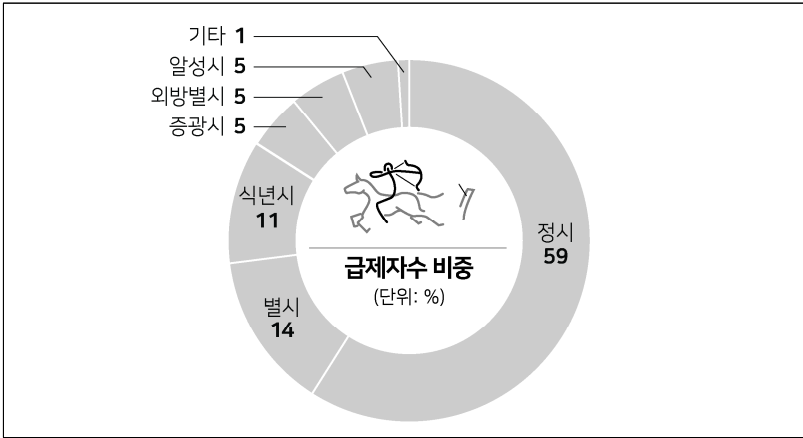
① 1618 ~ 1894년 중 천 명 이상의 무과급제자 배출 연도의 무과 급제자수



② 1608 ~ 1894년 무과급제자의 주요 성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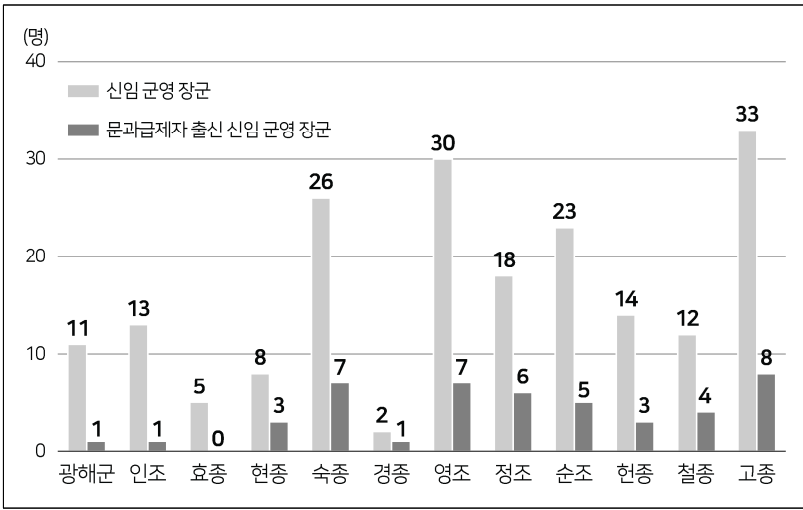
③ 1608 ~ 1894년 무과 종류별 급제자수의 비중



④ 광해군 이후(1608 ~ 1894년) 무과급제자의 출신지역 비중 (단위: %)

출신지역	함경	평안	황해	강원	한양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광해군	2.6	2.3	5.2	4.9	12.5	38.0	3.0	16.1	15.4
인조	0.3	0.4	3.6	1.1	25.3	45.9	3.1	12.0	8.2
효종	1.5	7.0	16.8	1.2	20.4	13.7	9.7	19.6	10.1
현종	1.9	7.9	8.8	2.5	28.3	21.3	6.1	14.4	8.7
숙종	2.7	11.6	9.2	1.7	35.9	15.6	5.1	10.7	7.5
경종	2.0	8.5	18.2	1.1	36.5	13.9	7.8	7.8	4.3
영조	5.7	13.6	10.9	1.7	29.4	24.5	4.7	5.1	4.3
정조	5.1	19.3	15.5	2.5	27.5	17.6	3.8	4.0	4.7
순조	9.6	15.2	5.7	2.4	33.6	22.5	3.7	3.0	4.2
헌종	4.6	2.1	0.0	2.5	31.5	38.4	5.0	7.1	8.9
철종	9.7	3.9	0.0	3.2	14.6	32.1	7.5	12.2	16.8
고종	7.2	5.0	2.4	2.5	7.1	1.1	26.1	24.3	24.5

⑤ 광해군 이후(1608 ~ 1894년) 신임 군영 장군수 및 문과급제자 출신 신임 군영 장군수



7. 다음 <표>는 2015 ~ 2024년 ‘갑’국의 사형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갑’국의 사형수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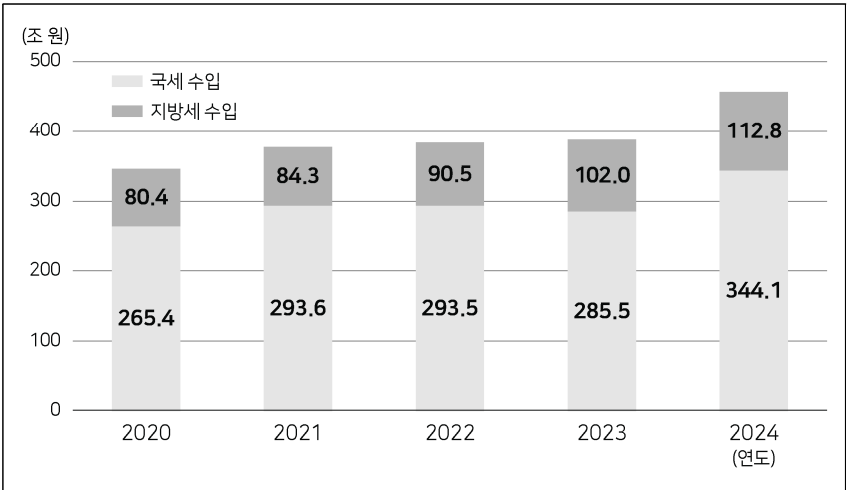
구분 연도	확정 인원	변동 인원	집행	감형	병사 등	미집행 인원
2015	4	2	0	2	0	40
2016	4	5	0	5	0	()
2017	9	4	0	2	2	44
2018	8	1	1	0	0	51
2019	2	4	0	4	0	()
2020	5	3	3	0	0	()
2021	2	4	0	0	4	49
2022	3	2	2	0	0	()
2023	2	8	0	6	2	()
2024	3	0	0	0	0	47

※ 연도별 미집행 인원 = 전년도 미집행 인원 + 해당 연도 확정 인원 - 해당 연도 변동 인원

- ① 미집행 인원이 가장 적은 연도는 2023년이다.
- ② 2016 ~ 2024년 감형 인원 합은 집행 인원 합의 3배 이상이다.
- ③ 집행 인원이 1명 이상인 해의 미집행 인원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④ 미집행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이 가장 높다.
- ⑤ 미집행 인원 대비 확정 인원 비율은 2020년이 2015년보다 높다.

8. 다음 <그림>은 2020 ~ 2024년 ‘갑’국 조세수입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2020 ~ 2024년 ‘갑’국 조세수입 현황



※ 조세수입은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으로만 구성됨.

<보고서>

- ① 2020 ~ 2024년 ‘갑’국의 조세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총 456.9조 원 수준이다. 2023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 ② 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 이상 증가하였다.
-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해왔는데, ③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23년에 가장 높았다. ‘갑’국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 % 이상을 유지해왔다. 재정분권 등에 따라
- ④ 2021년 이후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 ⑤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024년이 가장 컸다.

9. 다음 <표>는 2024년 지하철 ‘갑’노선 A ~ Q 역의 승하차 승객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 지하철 ‘갑’노선 A ~ Q 역의 승하차 승객수
(단위: 천 명)

역명\구분	승차			하차		
	승차	순승차	환승유입	하차	순하차	환승유출
A	944	944	—	634	634	—
B	17,388	()	14,717	17,546	3,869	13,677
C	1,036	1,036	—	1,106	1,106	—
D	2,383	2,383	—	2,331	2,331	—
E	1,463	1,463	—	1,276	1,276	—
F	2,897	2,897	—	2,736	2,736	—
G	17,797	6,661	11,136	18,560	()	11,935
H	5,455	5,455	—	5,614	5,614	—
I	18,544	()	8,920	18,879	9,216	9,663
J	23,563	()	14,455	24,088	()	15,165
K	1,690	1,690	—	1,407	1,407	—
L	3,235	3,235	—	3,294	3,294	—
M	7,660	702	6,958	7,663	()	7,068
N	359	359	—	372	372	—
O	1,366	1,366	—	1,381	1,381	—
P	21,236	()	15,814	21,970	7,482	14,488
Q	1,344	1,344	—	1,298	1,298	—

※ A ~ Q 중 B, G, I, J, M, P만 환승역이며, 나머지는 일반역임.

<보 기>

- ㄱ. 환승유입 승객수가 많은 환승역일수록 환승유출 승객수도 많다.
- ㄴ. 각 환승역에서 환승유출 승객수는 순하차 승객수보다 많다.
- ㄷ. 일반역 중 순승차 승객수와 순하차 승객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역은 N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0. 다음 <표>는 2024년 ‘갑’국의 발의 법률안 처리 및 계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발의 주체별 법률안의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발의 주체\구분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의원	2,289	153.8	188	()	9,096	11,573
위원장	455	1.5	1	6.0	1	457
정부	181	152.5	0	—	202	383
전체	2,925	130.0	189	()	9,299	12,413

<표 2>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자 성별에 따른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성별	처리				계류	합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평균 처리기간	건수	건수
남성	1,767	153.9	149	79.4	7,098	9,014
여성	522	153.4	39	80.6	1,998	2,559
계	2,289	153.8	188	()	9,096	11,573

- ① 전체 발의 법률안 건수 중 정부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5 % 이하이다.
- ②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계류 중인 건수의 비중은 80 % 이하이다.
- ③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법률반영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20 % 이하이다.
- ④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남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70 % 이상이다.
- ⑤ 의원 발의 법률안 가운데 법률미반영 법률안의 평균처리기간은 80일 미만이다.

11. 다음 <표>는 2024년 ‘갑’도청의 보도자료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 ‘갑’도청의 보도자료 현황
(단위: 건, %, 회)

국	구분	보도 자료 제공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보도 횟수				건당 보도 횟수
						신문	TV	라디오	
경제 통상국	A	202	176	87.1	966	676	190	100	5.49
	B	114	76	66.7	320	196	68	56	4.21
	C	228	204	89.5	910	692	122	96	4.46
	소계	544	456	83.8	()	1,564	380	252	()
보건 복지국	D	160	135	84.4	747	570	101	76	5.53
	E	202	154	76.2	855	560	218	77	5.55
	F	155	131	84.5	654	480	90	84	4.99
	소계	517	420	81.2	2,256	1,610	409	237	5.37
농업 정책국	G	266	180	67.7	394	240	84	70	2.19
	H	133	110	82.7	366	252	74	40	3.33
	소계	399	290	()	760	492	158	110	2.62

- ※ 1) 보도건수는 각 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가운데 보도된 보도자료 건수임.
- 2) 보도율(%) = $\frac{\text{보도건수}}{\text{보도자료 제공건수}} \times 100$
- 3) 건당 보도횟수 = $\frac{\text{보도횟수}}{\text{보도건수}}$
- 4) 경제통상국, 보건복지국, 농업정책국에는 제시된 과만 있음.

<보 기>

- ㄱ. 경제통상국의 건당 보도횟수는 5회 이상이다.
- ㄴ. 보도횟수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D ~ F 중 E가 가장 작다.
- ㄷ. H의 보도자료 제공건수와 보도건수가 각각 10건씩 증가한다면, 농업정책국의 보도율은 75 %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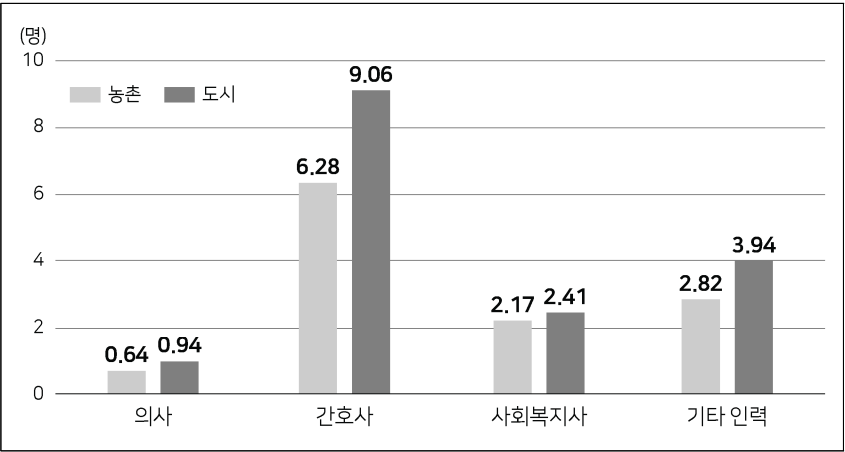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12. 다음은 농촌 및 도시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담당면적별 농촌 및 도시 치매안심센터 수
(단위: 개소)

담당면적 \ 구분	농촌	도시
100 km ² 미만	4	99
100 km ² 이상 200 km ² 미만	9	28
200 km ² 이상 300 km ² 미만	8	17
300 km ² 이상 400 km ² 미만	7	9
400 km ² 이상 500 km ² 미만	8	9
500 km ² 이상 600 km ² 미만	9	6
600 km ² 이상 700 km ² 미만	11	2
700 km ² 이상	20	10
계	76	180

<그림> 농촌 및 도시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종사자 수



<보 기>

- ㄱ. 농촌 치매안심센터 중 담당면적이 500 km² 이상인 센터의 비중은 도시 치매안심센터 중 담당면적이 100 km² 미만인 센터의 비중보다 크다.
- ㄴ. 전체 치매안심센터 중 농촌 치매안심센터의 비중은 담당면적이 100 km² 이상 200 km² 미만인 치매안심센터 중 농촌 치매안심센터의 비중보다 크다.
- ㄷ.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는 도시가 농촌의 4배 이상이다.
- ㄹ. 종사자 수 변동없이 농촌 치매안심센터만 14개소 추가되면, 농촌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사회복지사는 2명 이하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3 ~ 14] 다음 <표>는 2019 ~ 2023년 ‘갑’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9 ~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조정 중재 종료	조정							중재	조정 중재 성립
		합의	결정			부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	1,636	849	342	181	161	209	225	11	0	()
2020	1,624	824	358	158	200	201	225	16	0	982
2021	1,546	861	331	()	177	154	192	8	0	1,015
2022	1,364	871	238	()	122	104	142	7	2	989
2023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
계	7,631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5,019

- ※ 1) 조정중재종료 = 조정 + 중재
2) 조정중재성립 = 합의 + 성립 + 중재
3) 조정중재성립률(%) = $\frac{\text{조정중재성립}}{\text{조정중재종료} - \text{각하}} \times 100$

<표 2> 2019 ~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
(단위: 건, 천 원/건)

연도	기관유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구분					
2019	건수		216	225	259	184
	건당 성립금액		13,699	11,670	7,876	5,081
2020	건수		210	235	254	164
	건당 성립금액		17,315	16,136	9,899	7,263
2021	건수		228	190	269	171
	건당 성립금액		11,578	18,540	9,827	6,118
2022	건수		175	154	277	217
	건당 성립금액		14,081	11,593	8,360	5,802
2023	건수		191	202	258	209
	건당 성립금액		15,708	11,871	9,784	10,326

※ 건당 성립금액 = $\frac{\text{전체 성립금액}}{\text{조정중재성립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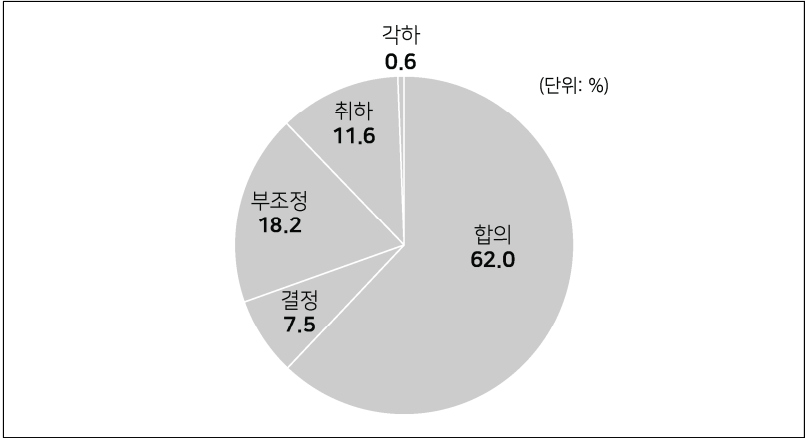
13.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다.
ㄴ. 조정중재성립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
ㄷ. 매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은 ‘병원’이다.
ㄹ.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건당 성립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이 매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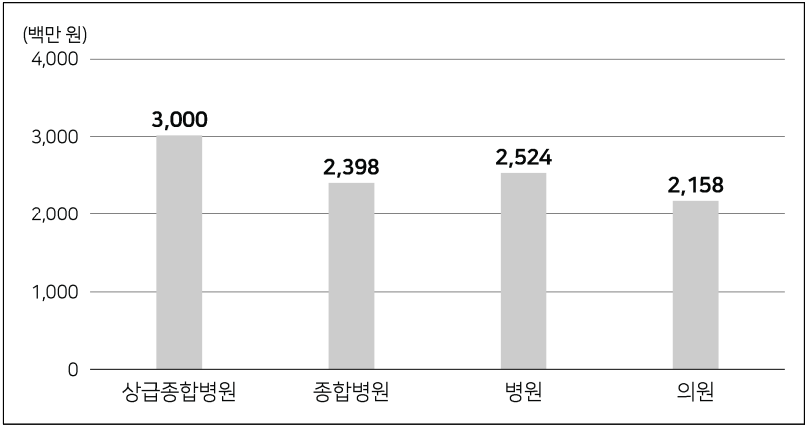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4. 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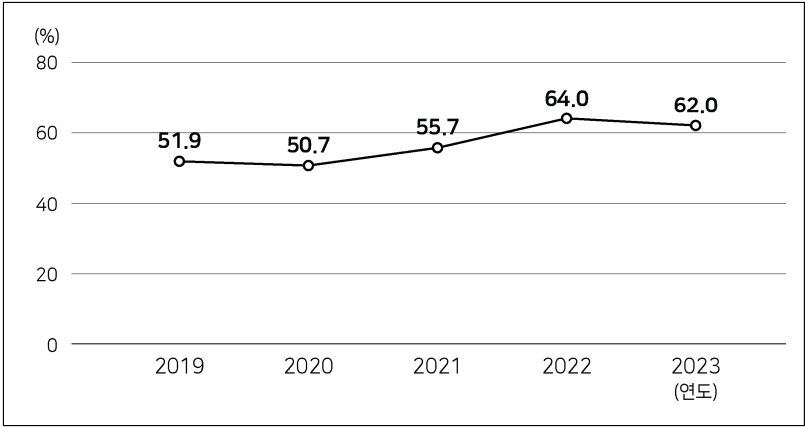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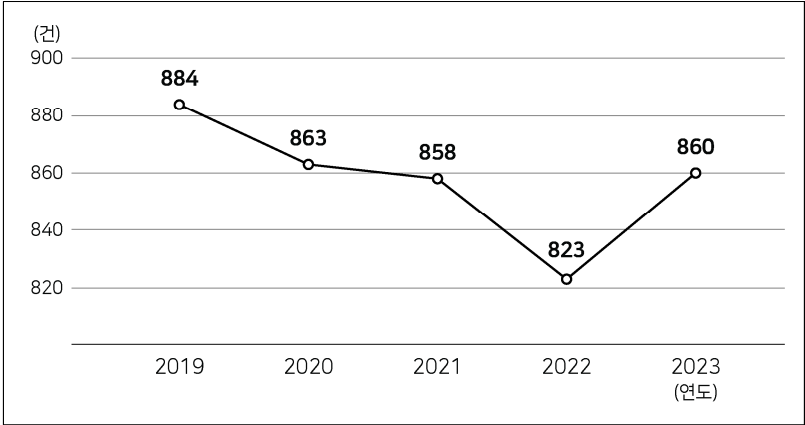
② 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 전체 성립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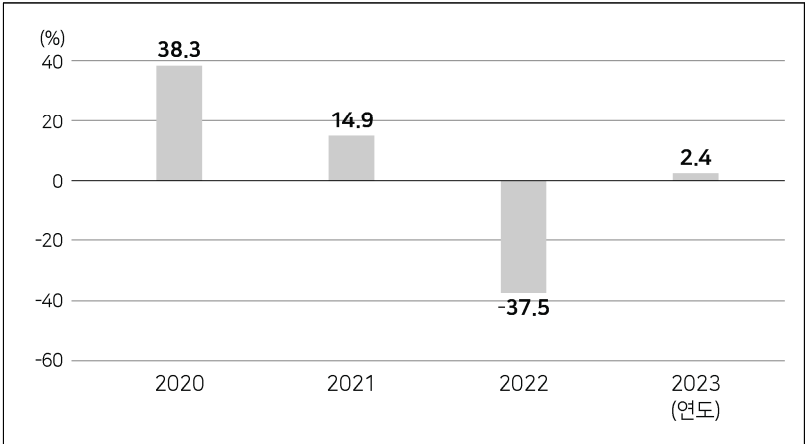
③ 연도별 조정 건수 중 합의 건수의 비중



④ 연도별 4개 주요 기관유형 조정중재성립 건수의 합



⑤ 종합병원의 전년 대비 건당 성립금액의 증가율



15. 다음 <표>는 2024년 기관유형별 직급 정원 구성비와 A ~ E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갑’기관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갑’에 해당하는 기관은?

<표 1> 2024년 기관유형별 직급 정원 구성비 (단위: %)

기관유형 \ 직급	상급 (1 ~ 2급)	중급 (3 ~ 4급)	하급 (5 ~ 6급)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2	55.2	34.6
유사업무 수행 공공기관	21.2	47.7	31.1
유사업무 수행 민간기관	56.3	32.1	11.6

<표 2> 2024년 A ~ E기관의 직급별 정원 (단위: 명)

직급 \ 기관		A	B	C	D	E
상급	1급	31	13	22	32	83
	2급	55	40	84	99	130
중급	3급	96	69	226	234	224
	4급	99	119	332	262	79
하급	5급	109	100	331	282	48
	6급	94	11	308	26	116
전체		484	352	1,303	935	680

※ ‘갑’기관은 A ~ E기관 중 하나임.

<보고서>

2024년 ‘갑’기관은 업무 개편에 따른 직급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사업무 수행 공공기관’ 및 ‘유사업무 수행 민간기관’의 직급 정원 구성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024년 ‘상급’ 직급 정원 비중은 ‘갑’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보다 컸다. 한편, ‘갑’기관의 ‘중급’ 직급 정원 비중은 40 % 이상이지만, ‘유사업무 수행 공공기관’의 ‘중급’ 직급 정원 비중보다는 작았다. 또한, ‘갑’기관의 ‘하급’ 직급 정원 비중과 ‘유사업무 수행 민간기관’의 ‘하급’ 직급 정원 비중의 차이는 30 %p 이상이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6. 다음 <표>는 ‘갑’군의 읍·면별 성별 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군의 읍·면별 성별 인구 (단위: 명)

지역 \ 성별	남성	여성	전체
‘갑’군	13,839	13,177	27,016
A 읍	3,839	3,503	7,342
B 읍	2,766	2,820	5,586
C 면	1,082	1,111	2,193
D 면	1,707	1,605	3,312
E 면	4,445	4,138	8,583

※ ‘갑’군은 A 읍, B 읍, C 면, D 면, E 면으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읍·면은 3개이다.
- ㄴ. C ~ E 면은 인구가 많은 면일수록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높다.
- ㄷ. ‘갑’군 여성 중 읍 지역 여성 비중과 ‘갑’군 남성 중 면 지역 남성 비중의 차이는 10 %p 이하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7. 다음 <표>는 2014 ~ 2022년 ‘갑’국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4 ~ 2022년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단위: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연구소	3,193	3,515	3,721	3,401	3,655	3,972	4,308	4,653	4,572
대학	2,788	3,784	4,316	4,076	4,450	4,486	4,747	5,610	4,815
전체	5,981	7,299	8,037	7,477	8,105	8,458	9,055	10,263	9,387

<표 2> 2014 ~ 2022년 계약유형별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단위: 건)

계약유형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상양도	718	1,107	1,587	1,466	1,796	2,214	2,485	2,957	3,002
무상양도	419	550	511	282	159	208	141	262	224
유상기술실시	4,098	5,113	5,385	4,905	5,158	4,958	5,465	6,155	5,441
무상기술실시	639	322	327	278	340	452	389	453	209
옵션계약	0	0	1	0	0	0	0	1	0
기타	107	207	226	546	652	626	575	435	511
전체	5,981	7,299	8,037	7,477	8,105	8,458	9,055	10,263	9,387

<표 3> 2022년 기술도입자별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단위: 건)

기술도입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외기관	기타
건수	185	154	8,775	2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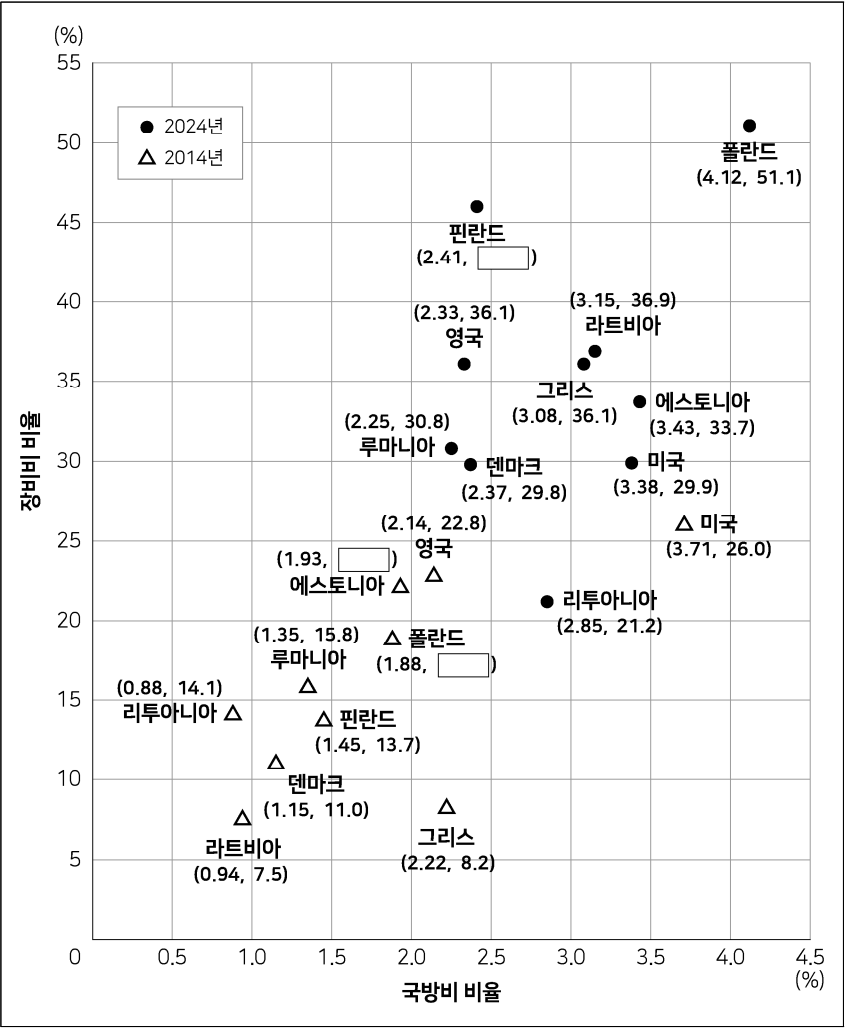
<보 기>

- ㄱ. 기술이전 건수는 매년 대학이 공공연구소보다 많다.
- ㄴ. 2022년 기술도입자가 중소기업인 기술이전 건수 중 ‘유상기술실시’의 비중은 50 % 이상이다.
- ㄷ. 전체 기술이전 건수 중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 이상인 연도는 5개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8. 다음 <그림>은 NATO 회원국 중 2024년 국방비 비율 상위 10개국의 국방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24년 국방비 비율 상위 10개국의 2014년과 2024년 국방비 비율과 장비비 비율



- ※ 1) () 안의 수치는 순서대로 국방비 비율(%), 장비비 비율(%)을 나타냄.
- 2) 국방비 비율(%) = $\frac{\text{국방비}}{\text{GDP}} \times 100$
- 3) 장비비 비율(%) = $\frac{\text{장비비}}{\text{국방비}} \times 100$

<보 기>

- ㄱ. 2024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14년 대비 2024년 ‘국방비 비율’ 증가폭도 가장 컸다.
- ㄴ. 2024년 ‘장비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2014년 대비 2024년 ‘장비비 비율’ 증가폭도 가장 작았다.
- ㄷ. 미국의 GDP 대비 장비비는 2024년이 2014년보다 낮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19. 다음 <표>는 2023년과 2024년 ‘갑’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갑’국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업종	구분	가맹점수			종사자수
	연도	2023	2024	전년 대비	2024
편의점		49,087	53,814	4,727	201,043
의약품		4,090	4,514	424	13,666
안경/렌즈		3,838	3,911	73	9,390
제과점		8,307	8,980	673	37,142
한식		40,731	45,114	4,383	143,233
외국식		11,471	14,156	2,685	55,279
생맥주/기타주점		9,680	10,648	968	29,637
커피/비알콜음료		24,820	29,499	4,679	116,557
두발미용		4,186	4,580	394	21,318
전체		156,210	175,216	19,006	()

※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시된 9개뿐임.

- ① 2024년 가맹점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2024년 가맹점당 종사자수도 가장 많다.
- ② 2024년 가맹점수 상위 3개 업종의 가맹점수 합은 2024년 전체 가맹점수의 75 % 이상이다.
- ③ 전체 가맹점수 중 커피/비알콜음료 가맹점수의 비중은 매년 15 % 이상이다.
- ④ 2024년 가맹점수가 많은 업종일수록 종사자수도 많다.
- ⑤ 2024년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4명 이상이다.

20. 다음 <표>는 ‘갑’부처의 부서별 인원 변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부서별 인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부서	구분	퇴사자수	순환율	퇴사율
A		35	15.0	70.0
B		120	25.0	80.0
C		33	8.5	66.0
D		60	8.0	75.0
E		36	30.0	30.0
F		37	12.5	74.0
전체		321	17.0	64.2

※ 1) 순환율(%) = $\frac{\text{입사자수} - \text{퇴사자수}}{\text{부서인원수}} \times 100$

2) 퇴사율(%) = $\frac{\text{퇴사자수}}{\text{입사자수}} \times 100$

<보 기>

- ㄱ. 부서인원수가 많은 부서일수록 퇴사율이 높다.
- ㄴ. 입사자수는 E가 A의 2배 이상이다.
- ㄷ. 전체 퇴사자수 대비 C의 퇴사자수 비율은 10 %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1. 다음 <표>는 2020 ~ 2024년 ‘갑’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과일섭취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0 ~ 2023년 과일섭취율
(단위: %)

연도	학교급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0		20.8	20.9	24.5	25.0	17.6	17.3
2021		20.3	20.6	24.2	23.8	16.8	17.6
2022		19.1	18.1	22.0	21.1	16.3	15.2
2023		18.4	17.8	21.9	20.3	14.8	14.9

<표 2> 2024년 성별, 학교급 및 학년별 과일섭취율
(단위: 명, %)

성별	학교급	학년	조사대상자 수	과일섭취율
남자	중학교	소계	14,173	20.6
		1	4,743	21.4
		2	4,734	21.1
		3	4,696	19.3
	고등학교	소계	12,206	14.2
		1	4,233	14.8
		2	4,160	14.1
여자	중학교	3	3,813	13.6
		소계	13,827	19.2
		1	4,489	19.7
		2	4,610	19.4
		3	4,728	18.5
	고등학교	소계	11,620	14.6
		1	4,224	15.4
		2	3,818	14.4
		3	3,578	13.9

※ 1) 과일섭취율(%) = $\frac{\text{과일섭취자 수}}{\text{조사대상자 수}} \times 100$

2) 과일섭취자는 조사대상자 중 설문조사일 기준 최근 일주일동안 1일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했다고 응답한 사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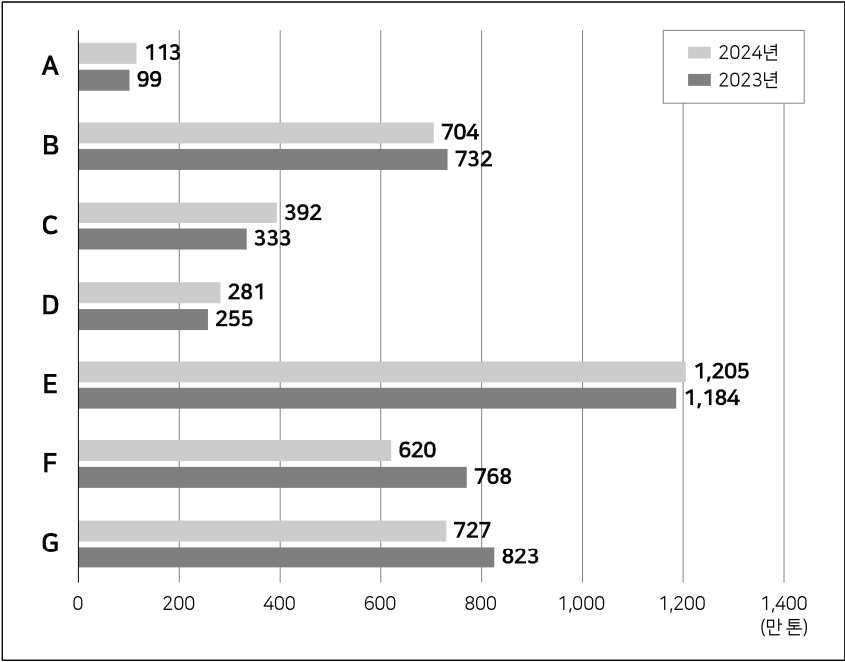
<보 기>

- ㄱ. 2021년 이후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과일섭취율 차이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ㄴ. 2024년 과일섭취율은 남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모두 2023년보다 감소하였다.
- ㄷ. 2020년과 2024년의 여자 중학생 과일섭취자 수가 같다면, 2020년 여자 중학생 조사대상자 수는 10,000명 이하이다.
- ㄹ. 2024년 과일섭취자 수는 2학년 여자 중학생이 2학년 남자 고등학생의 1.5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2. 다음 <그림>은 2023년과 2024년 ‘갑’국 A ~ G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2023년과 2024년 A ~ G 지역 폐기물 발생량



※ ‘갑’국은 A ~ G 7개 지역으로만 구성됨.

- ① 2024년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감소한 지역보다 많다.
- ② 2024년 F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보다 100만 톤 이상 적다.
- ③ 2023년 E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30 % 이상이다.
- ④ 2023년 대비 2024년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C이다.
- ⑤ 2024년 폐기물 발생량이 7개 지역 폐기물 발생량의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4곳이다.

23. 다음 <표>는 2019 ~ 2024년 ‘갑’국의 예비군 교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의 예비군 교육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교육 대상자수	교육 참여자수	참여율	수료율
연도				
2019	35,523	25,413	71.5	35.0
2020	35,354	()	72.3	36.5
2021	35,183	26,120	()	()
2022	34,915	()	()	38.2
2023	34,590	27,020	78.1	40.0
2024	34,128	27,350	80.1	41.5

※ 1) 참여율(%) = $\frac{\text{교육 참여자수}}{\text{교육 대상자수}} \times 100$

2) 수료율(%) = $\frac{\text{교육 수료자수}}{\text{교육 참여자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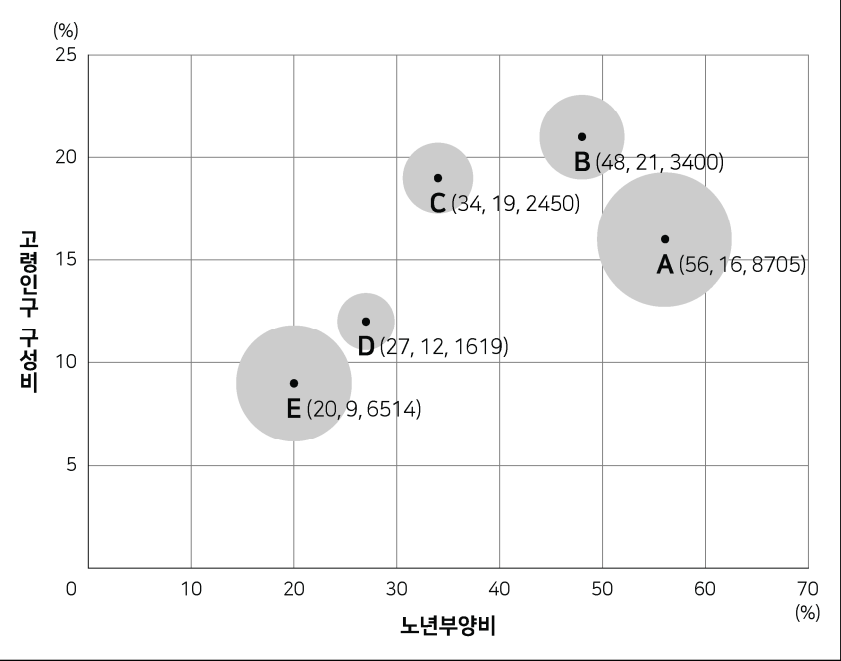
<보 기>

- ㄱ. 2020년 교육 참여자수는 전년보다 많다.
- ㄴ. 2021년 교육 수료자수가 9백만 명이라면, 2021년 수료율은 전년보다 높다.
- ㄷ. 2022년 참여율은 전년 대비 3%p 이상 높다.
- ㄹ. 2024년 교육 수료자수는 전년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4. 다음 <그림>은 ‘갑’국 A ~ E 도시의 노년부양비, 고령인구 구성비, 총인구, 총인구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갑’국 A ~ E 도시의 노년부양비, 고령인구 구성비, 총인구



- ※ 1) 원의 면적은 각 도시의 총인구에 비례하고, () 안의 수치는 순서대로 노년부양비(%), 고령인구 구성비(%), 총인구(천 명)를 나타냄.
- 2) 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text{생산연령인구}} \times 100$
- 3) 고령(생산연령)인구 구성비(%) = $\frac{\text{고령(생산연령)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은 도시일수록 노년부양비도 높다.
- 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낮은 도시는 A이다.
- ㄷ. B 도시와 E 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 통합 도시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15 % 이하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5. 다음은 ‘갑’ 사이버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연령대별 재학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갑’ 사이버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연령대별 재학생 현황

	연령대	학부	대학원	
<div> ‘갑’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현황 (단위: 명)</div>	10대 이하	1,040	0	학령기
	20 ~ 24세	4,050	19	
	25 ~ 29세	4,640	102	성인학습기
	30대	5,020	224	
	40대	5,950	340	
	50대	4,430	280	
	60대 이상	1,350	64	
전체		26,480	1,029	

- ※ 1) 연령대는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만 구분함.
- 2) 재학생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 중 하나에만 소속되어 있음.
- ① 학부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이다.
- ② 대학원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학부 대비 대학원 재학생 수의 비율도 가장 높다.
- ③ 성인학습기 대학원 재학생 중 90 %가 직장인이라면, 그중 40대는 200명 이상이다.
- ④ 학부 재학생 수는 성인학습기가 학령기의 5배 이상이다.
- ⑤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의 재학생 수는 가장 적은 연령대의 9배 이상이다.

26. 다음 <표>는 2024년 A ~ E 도시의 일평균 미세먼지 노출시간별 호흡기 질환 발병률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A ~ E 도시 중 하나인 ‘갑’시에 관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갑’시에 해당하는 도시는?

<표> 2024년 A ~ E 도시의 일평균 미세먼지 노출시간에 따른 성별 호흡기 질환 발병률

(단위: %)

미세먼지 노출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도시 A	4.70	3.20	5.50	3.90	6.80	4.50	9.70	6.90
B	3.60	3.30	3.90	4.70	4.60	6.30	5.20	8.30
C	5.30	3.80	6.80	5.80	7.70	5.30	8.30	6.70
D	4.90	2.10	5.70	2.70	7.10	3.10	8.50	3.40
E	3.30	4.60	4.10	5.50	6.40	8.40	7.20	9.70

<보고서>

‘갑’시의 2024년 일평균 미세먼지 노출시간에 따른 남녀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매 1시간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 차이는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3시간일 때가 1시간일 때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셋째,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매 1시간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발병률의 증감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넷째, 호흡기 질환 발병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4시간일 때가 2시간일 때의 1.3배 이상이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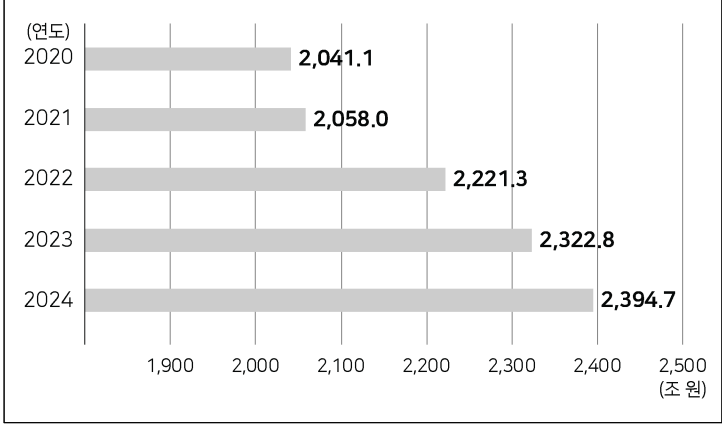
27. 다음 <표>는 2020 ~ 2024년 ‘갑’국의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자료 중 <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의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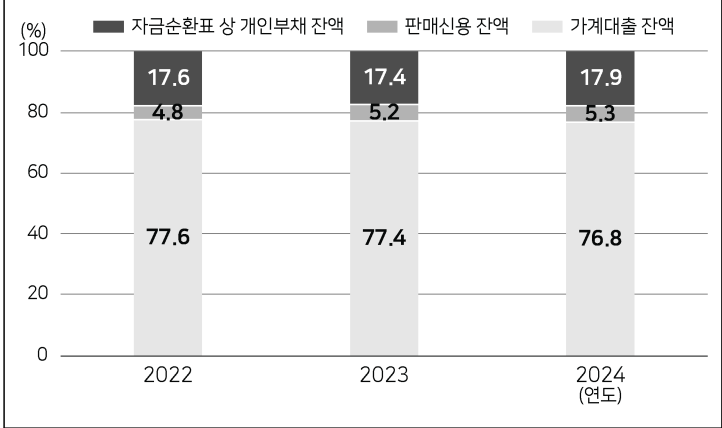
분류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계부채 잔액		1,828.8	1,998.3	2,192.4	2,260.1	2,241.4
가계대출 잔액		1,504.9	1,633.6	1,757.1	1,749.8	1,767.3
예금은행분 잔액		767.7	849.9	910.1	902.6	916.0
주택담보대출 잔액		534.0	583.9	629.6	644.1	672.1
비은행·기타분 잔액		737.2	783.7	847.0	847.2	851.3
판매신용 잔액		96.7	95.9	105.8	117.7	118.1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		227.2	268.8	329.5	392.6	356.0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잔액 비율		89.6	97.1	98.7	97.3	93.6

<보 기>

ㄱ. 2020 ~ 2024년 ‘갑’국의 연도별 명목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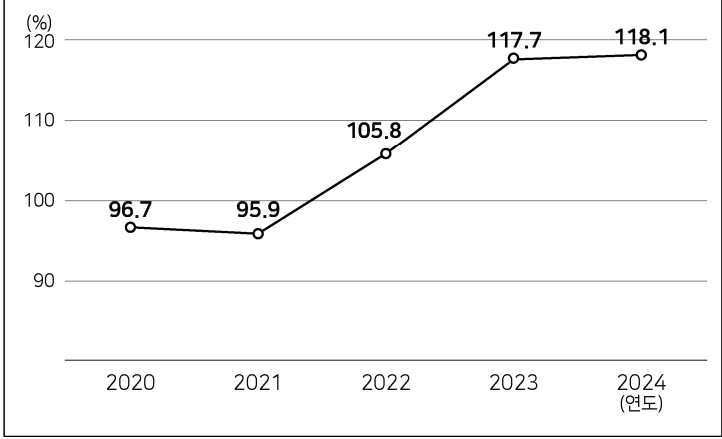
ㄴ. 2022 ~ 2024년 가계부채 잔액의 항목별 구성비



ㄷ. 2021 ~ 2024년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
(단위: 조 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	49.9	45.7	14.5	28.0

ㄹ. 2020 ~ 2024년 비은행·기타분 잔액 대비 예금은행분 잔액의 비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8. 다음 <표>는 2020 ~ 2024년 ‘갑’국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 및 기관별 건강보험 청구 진료일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0 ~ 2024년 건강보험 청구 현황

항목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청구건수 (천 건)	입원	16,657	16,966	16,125	16,401	17,391
	외래	1,421,038	1,445,529	1,260,218	1,244,093	1,418,132
진료일수 (천 일)	입원	()	147,651	140,211	138,110	136,767
	외래	()	1,444,447	1,258,853	1,242,564	1,416,473
진료인원 (천 명)	입원	7,564	7,636	6,927	7,016	7,072
	외래	48,189	48,395	47,564	47,626	49,145
요양급여비용 (억 원)	입원	291,041	320,081	328,548	346,873	349,059
	외래	488,100	537,857	539,790	588,111	680,711
인당 진료일수 (일/명)	입원	19.52	19.34	20.24	19.68	19.34
	외래	29.46	29.85	26.47	26.09	28.82
일당 진료비 (원/일)	입원	197,090	216,783	234,324	251,156	255,222
	외래	34,380	37,236	42,880	47,330	48,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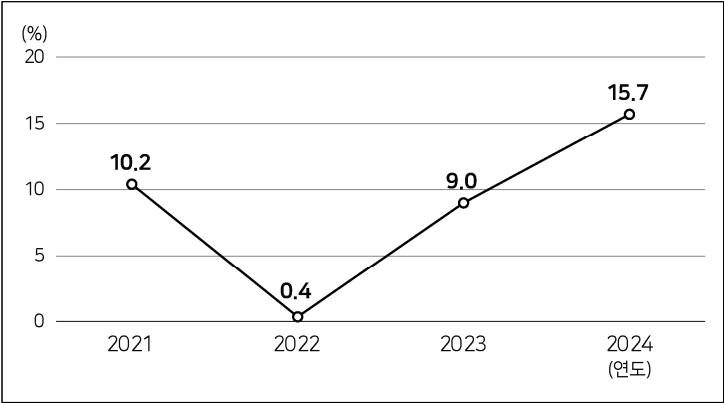
<표 2> 2020 ~ 2024년 기관별 건강보험 청구 진료일수
(단위: 천 일)

기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상급종합병원		58,571	57,741	54,634	59,376	60,258
종합병원		94,778	98,489	90,052	94,922	107,180
병원		94,406	95,435	82,324	80,332	89,938
요양병원		68,470	69,058	67,288	61,110	60,971
정신병원		—	—	—	5,046	7,437
의원		547,466	557,259	484,185	474,939	557,721
치과병원		4,318	4,617	4,435	4,550	4,406
치과의원		69,602	73,915	71,882	74,995	75,044
한방병원		6,476	6,834	6,822	7,276	7,361
한의원		97,846	100,714	90,374	89,301	87,024
보건기관 등		11,861	11,321	7,633	5,335	5,257
약국		513,616	516,716	439,435	423,492	490,643
전체		1,567,411	1,592,098	1,399,064	1,380,674	1,553,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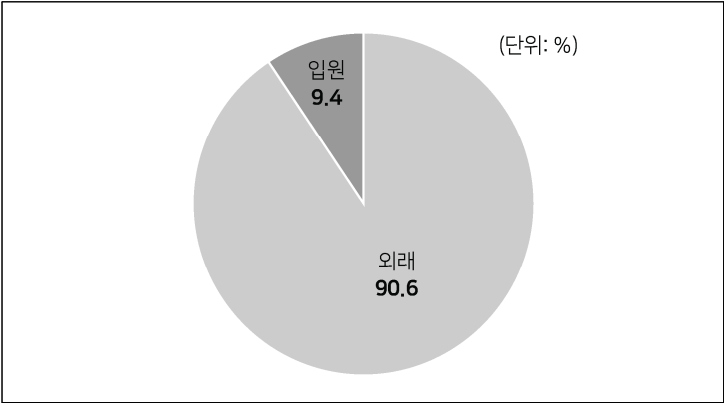
※ 1) 인당 진료일수 = $\frac{\text{진료일수}}{\text{진료인원}}$
2) 일당 진료비 = $\frac{\text{요양급여비용}}{\text{진료일수}}$
3) 정신병원은 2023년부터 기관 분류에 신설됨.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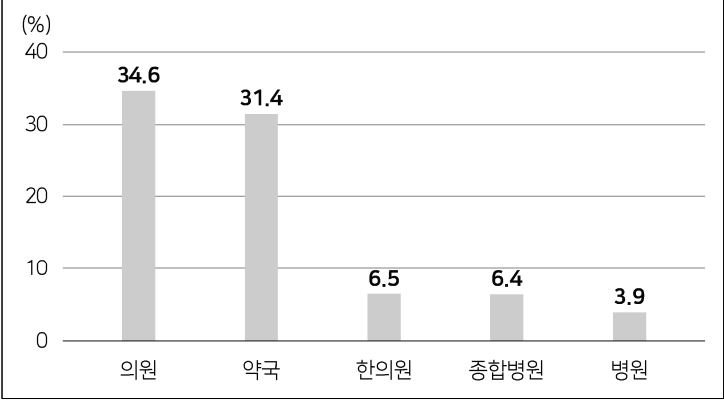
ㄱ. 연도별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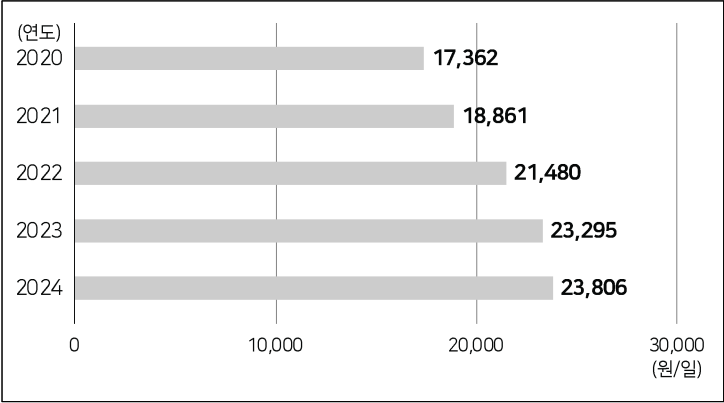
ㄴ. 2020년 진료일수 중 입원과 외래의 비중



ㄷ. 2022년 ‘전체’ 진료일수 대비 진료일수 상위 5개 기관의 진료일수 비중



ㄹ. 연도별 ‘의원’의 일당 진료비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9 ~ 30] 다음 <표>는 닭 품종별 조류독감 백신 접종 및 감염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품종별 접종 개체 및 감염 개체 수
(단위: 마리)

구분 \ 품종	A	B	C	D
접종 개체 수	5,615	10,610	12,491	6,698
감염 개체 수	3,047	2,415	5,554	3,621

※ 닭 품종은 A ~ D로만 구분되며, 품종별 접종 개체 중복은 없음.

<표 2> 품종별 감염 개체의 성별 및 생후개월별 구성비
(단위: %)

구분 \ 품종		A	B	C	D
성별	수컷	32.0	25.0	55.0	43.0
	암컷	68.0	75.0	45.0	57.0
생후개월별	12개월 미만	4.7	10.4	17.8	37.8
	12 ~ 24개월	15.7	9.9	28.4	4.0
	24 ~ 36개월	27.9	32.7	15.3	30.9
	36 ~ 48개월	1.6	30.0	21.5	22.5
	48개월 이상	50.1	17.0	17.0	4.8

<표 3> 품종별 · 생후개월별 접종 개체 수 및 감염률
(단위: 마리, %)

생후개월별 \ 품종	A		B		C		D	
	개체 수	감염률	개체 수	감염률	개체 수	감염률	개체 수	감염률
12개월 미만	624	23.1	1,350	18.5	2,191	45.2	2,274	60.2
12 ~ 24개월	1,167	41.0	860	27.9	4,153	38.0	415	34.7
24 ~ 36개월	1,465	58.0	2,368	33.4	1,725	49.3	2,091	53.5
36 ~ 48개월	325	15.1	1,838	39.4	2,297	51.9	1,092	74.7
48개월 이상	2,034	75.0	4,194	9.8	2,125	44.4	826	20.9

※ 감염률(%) = $\frac{\text{감염 개체 수}}{\text{접종 개체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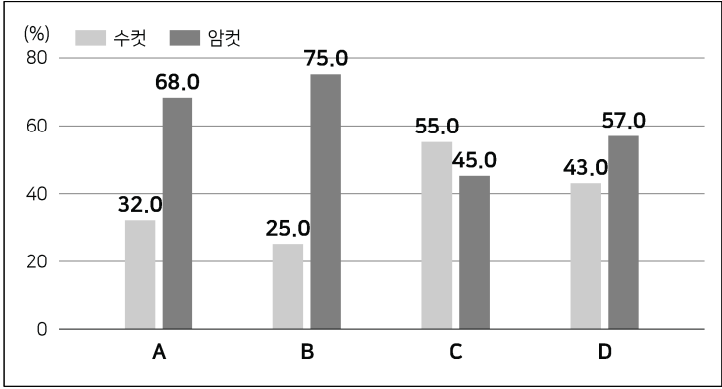
29.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 품종 생후 ‘24 ~ 36개월’ 감염 개체 수는 D 품종 생후 ‘36 ~ 48개월’ 감염 개체 수보다 적다.
- ② C 품종 생후개월별 감염률은 ‘48개월 이상’이 ‘24 ~ 36개월’보다 높다.
- ③ 성별 감염된 개체 수 차이는 A ~ D 품종 중 D가 가장 적다.
- ④ 생후 ‘36 ~ 48개월’ 감염 개체 수는 A ~ D 품종 중 B가 가장 많다.
- ⑤ D 품종 생후개월별 감염 개체 수는 ‘48개월 이상’이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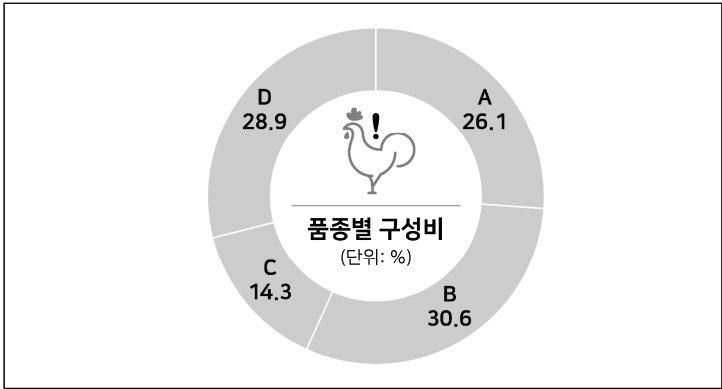
30. 위 <표>의 내용과 부합하는 그래프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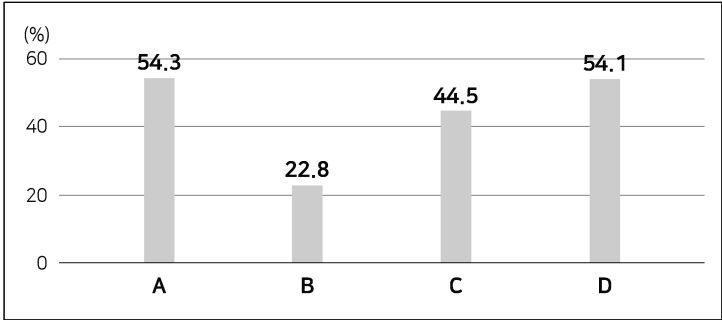
ㄱ. 품종별 성별 감염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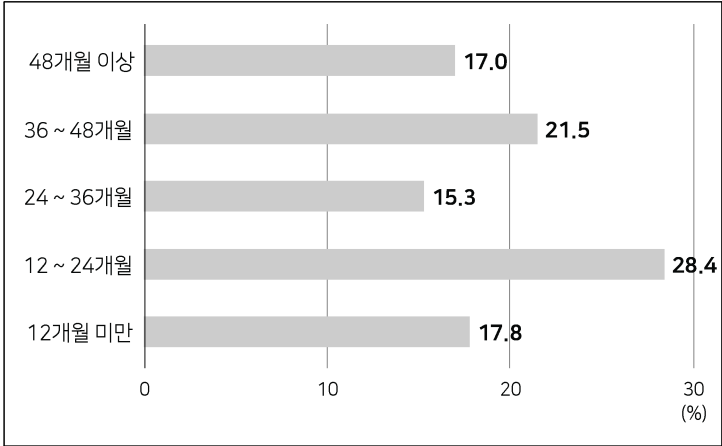
ㄴ. 생후 24 ~ 36개월 감염 개체 수의 품종별 구성비



ㄷ. 품종별 감염률



ㄹ. C 품종 감염 개체의 생후개월별 구성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1. 다음 <표>는 2019 ~ 2023년 ‘갑’국 지방직영기업의 유형별 자본규모 및 부채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9 ~ 2023년 지방직영기업의 유형별 자본규모
(단위: 억 원)

유형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수도	348,424	365,436	383,583	398,250	414,826
하수도	465,793	477,440	474,102	492,258	504,780
공영개발	204,686	211,542	270,772	272,595	268,396
자동차운송	149	127	114	105	167

<표 2> 2019 ~ 2023년 지방직영기업의 유형별 부채규모
(단위: 억 원)

유형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수도	5,534	5,687	8,130	7,850	8,387
하수도	56,536	53,643	54,060	50,992	48,245
공영개발	15,911	12,700	9,943	7,054	6,925
자동차운송	14	16	19	20	26

※ 1) ‘갑’국 지방직영기업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운송으로만 구분됨.

2) 부채비율(%) = $\frac{\text{부채규모}}{\text{자본규모}} \times 100$

- ① 2023년 지방직영기업 유형별 부채규모 순위와 부채비율 순위는 동일하다.
- ② 2022년에는 자본규모가 가장 큰 지방직영기업 유형과 부채규모가 가장 큰 지방직영기업 유형이 동일하다.
- ③ 2020년 지방직영기업 유형별 부채비율은 하수도가 공영개발의 1.5배 이상이다.
- ④ 2020년 부채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지방직영기업 유형은 공영개발이다.
- ⑤ 자본규모가 매년 증가한 지방직영기업 유형은 상수도뿐이다.

32. 다음은 케이블카 A ~ D의 이용요금 및 운행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와 <조건>에 근거하여 A, B에 해당하는 케이블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케이블카 A ~ D의 이용요금, 운행거리, 승객정원 및 운행속도
(단위: 원, m, 명, m/초)

구분 \ 케이블카	이용요금		운행거리	승객정원	운행속도
	대인	소인			
A	15,000	11,500	605	48	3.2
B	24,000	19,000	988	6	2.5
C	10,500	7,500	795	40	3.5
D	16,000	14,000	1,793	50	5.0

<정 보>

- 케이블카는 승객이 차량에 승차하는 출발점에서 하차하는 도착점까지 운행함.
- 운행거리는 각 케이블카 A ~ D의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임.
- 운행시간은 케이블카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도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며, 승·하차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 $\text{운행속도(m/초)} = \frac{\text{운행거리(m)}}{\text{운행시간(초)}}$
- 각 케이블카 A ~ D는 차량 1대씩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운행대수는 운행한 차량대수임.
- $\text{총운행시간} = \text{운행대수} \times \text{운행시간}$
- 케이블카에는 승객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이 탑승할 수 없음.

<조 건>

- A ~ D는 각각 ‘돌고래’, ‘무궁화’, ‘소나무’, ‘호랑이’ 중 하나이다.
- ‘소나무’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의 운행시간이 5분 이상이다.
- 200명의 승객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운행대수를 최소화할 때, 총운행시간이 가장 짧은 케이블카는 ‘호랑이’이다.
- 대인 2명과 소인 2명의 케이블카 이용요금 총합은 ‘소나무’와 ‘돌고래’ 사이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 | A | B |
|-------|-----|
| ① 무궁화 | 돌고래 |
| ② 무궁화 | 소나무 |
| ③ 호랑이 | 돌고래 |
| ④ 호랑이 | 무궁화 |
| ⑤ 호랑이 | 소나무 |

33. 다음 <표 1>은 ‘갑’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사과와 크기·품질별 개수 및 단가이고, <표 2>는 <규칙>에 따라 구성한 세트 A ~ C의 사과 크기, 사과 품질, 세트 개수 및 세트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해당하는 값은?

<표 1> ‘갑’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사과와 크기·품질별 개수 및 단가
(단위: 개, 원/개)

크기	품질	개수	단가
대	상	56	8,000
대	중	24	6,000
소	상	38	5,000
소	중	22	3,000

<규칙>

- 보유한 사과 140개를 10개씩 나누어 14개 세트를 구성한다.
- 각 세트는 품질 구분 없이 같은 크기의 사과로만 구성한다.
- 각 세트는 ‘상’ 품질의 사과가 ‘중’ 품질의 사과보다 많도록 구성한다.

<표 2> 세트별 사과 크기, 사과 품질, 세트 개수 및 세트 가격
(단위: 개, 원/개)

세트	사과 크기	사과 품질	세트 개수	세트 가격
A	대	상, 중	8	74,000
B	소	상, 중	()	44,000
C	소	상, 중	(가)	()

※ 세트 가격은 세트로 구성된 사과 10개의 단가를 모두 더한 금액임.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34. 다음 <표>는 A시의 신문 구독 가구 및 열독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2 ~ 2024년 A시의 신문 구독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조사대상 가구			6,000	4,500	4,300
신문 구독 가구			900	536	430
구독 신문 개수	1개		810	450	344
	2개		63	54	65
	3개		9	22	21
	4개 이상		18	10	0
월간 총 신문 구독료	1만 원 미만		63	40	26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783	450	350
	2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36	20	12
	3만 원 이상		18	26	42

<표 2> 2024년 A시의 신문 열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조사대상자	열독자
성별	남성	4,797	1,416
	여성	5,598	1,347
연령대	10대 이하	1,901	188
	20대	842	439
	30대	1,701	601
	40대	1,998	803
	50대	1,459	461
	60대 이상	2,494	271

<보 기>

- ㄱ. 2024년 조사대상 가구 대비 신문 구독 가구 비율은 2023년 보다 1.5%p 이상 감소하였다.
- ㄴ. 2024년 1개 또는 2개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3개 이상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보다 크다.
- ㄷ. 2024년 월간 구독료가 15,000원 이상인 신문이 있다.
- ㄹ. 2024년 연령대별 조사대상자 대비 열독자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5. 다음 <표>는 ‘갑’ ~ ‘무’ 모니터와 ‘가’ ~ ‘바’ 그래픽카드의 사양 및 단가에 대한 자료이고, <대화>는 자료와 관련한 사무관 사이의 대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2024년 3월 4일 A부서에서 구매한 모니터와 그래픽카드의 전체 가격은?

<표 1> 모니터 제품별 사양 및 단가
(단위: Hz, 인치, 천 원/개)


구분 제품	해상도별 지원 여부			주사율	크기	단가
	FHD	QHD	UHD			
갑	○	○	○	60	32	360
을	○	○	○	100	27	480
병	○	×	×	60	32	230
정	○	○	○	75	32	530
무	○	○	×	120	27	420

- ※ 1) ○: 지원, ×: 미지원
2) 해상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UHD, QHD, FHD임.

<표 2> 그래픽카드 제품별 사양 및 단가
(단위: fps, GB, 천 원/개)

구분 제품	해상도별 지원 프레임속도			메모리 용량	단가
	FHD	QHD	UHD		
가	337	287	163	24	3,100
나	224	141	68	12	680
다	172	108	52	8	520
라	306	214	115	24	1,600
마	217	147	77	16	740
바	129	81	39	8	380


<대 화>



장 사무관

조 사무관님, 소개해주신 ‘갑’ ~ ‘무’ 모니터와 ‘가’ ~ ‘바’ 그래픽카드의 사양 및 단가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A부서의 모니터, 그래픽카드 구매 예산과 제품별 구매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3:10 pm



조 사무관

네, 저희 A부서는 총 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모니터 10개와 그래픽카드 32개를 2024년 3월 4일에 구매하였습니다.


3:11 pm



장 사무관

모니터 10개와 그래픽카드 32개를 각각 단일 제품으로 구매하셨나요?


3:13 pm



조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자료에서 모니터는 30인치 이상 크기에 QHD 이상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였고, 그래픽카드는 해당 모니터가 지원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기준으로 그래픽카드 프레임속도 값이 모니터 주사율 값보다 큰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3:16 pm



장 사무관

그러셨군요. 예산 제약 때문에 제품 선택이 어려우셨겠어요.


3:17 pm



조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양을 만족하는 모니터와 그래픽카드 중 모니터는 단가 대비 주사율이 더 큰 제품을 선택하였고, 그래픽카드는 메모리 용량이 더 큰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모든 구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별 단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3:19 pm



장 사무관

수고 많으셨네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20 pm

- ① 25,360천 원
- ② 27,060천 원
- ③ 27,280천 원
- ④ 27,880천 원
- ⑤ 28,980천 원

36. 다음 <정보>는 A국에서 유조선에 선적하여 수출되는 원유의 최종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 <그림>과 <표>는 A국 현지단가, 유조선 ‘갑’ ~ ‘무’의 원유 선적 현황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유조선 ‘갑’ ~ ‘무’ 중 선적 원유의 최종단가가 가장 높은 것은?

<정 보>

- 수출 지역에 따라 A국 현지단가를 기준으로 적용단가를 정한다.

수출 지역	적용단가
유럽	선적일에서 20일 경과한 날부터 5일간의 현지단가 평균
미국	선적일에서 30일 경과한 날부터 3일간의 현지단가 평균
아시아	선적일이 속한 달의 현지단가 평균

※ 예) 선적일이 2024년 1월 1일이고, 수출 지역이 미국인 유조선에 선적된 원유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의 현지단가 평균을 적용단가로 함.

- 유조선별 선적 원유의 품질에 따라 적용단가에 품질계수를 곱하여 최종단가를 정한다.

품질	품질계수
고품질	1.1
저품질	1.0

<그림> 2024년 10월 날짜별 A국 현지단가
(단위: 달러/배럴)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0 October		01	02	03	04	05
		78	77	76	76	75
06	07	08	09	10	11	12
74	73	73	72	70	70	68
13	14	15	16	17	18	19
67	66	65	64	63	62	63
20	21	22	23	24	25	26
64	65	66	67	68	70	71
27	28	29	30	31		
72	73	73	74	75		

<표> 유조선 ‘갑’ ~ ‘무’의 A국 원유 선적 현황

유조선 구분	갑	을	병	정	무
수출 지역	유럽	유럽	미국	미국	아시아
선적일	2024년 9월 18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9월 22일	2024년 9월 4일	2024년 10월 2일
품질	고품질	저품질	고품질	저품질	고품질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37. 다음 <표>는 ‘갑’지역 국회의원 2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지역 국회의원 24명의 소속 정당별·부동산 유형별 보유자수

(단위: 명)

부동산 유형		주택	상가	대지	농지
소속 정당					
●●당		2	6	2	2
△△당		8	12	9	5
○○당		1	0	0	0

<표 2> ‘갑’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유형별 보유 현황 자료 중 일부

부동산 유형		주택	상가	대지	농지
이름	소속 정당				
A	△△당	✓	✓		
B	△△당		✓	✓	
C	△△당	✓	✓		
D	△△당	✓		✓	✓
E	△△당			✓	✓
F	△△당		✓	✓	
G	△△당		✓	✓	
H	△△당	✓	✓	✓	
I	△△당	✓	✓		✓
J	△△당			✓	
K	●●당		✓	✓	✓
L	●●당	✓	✓		
M	△△당	✓	✓		✓
N	△△당			✓	✓
O	△△당	✓	✓	✓	
P	△△당	✓			
Q	()	✓	✓	✓	✓
R	()	()	()	()	()

- ※ 1) ✓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2) 부동산 유형은 제시된 4개뿐임.
3) ‘갑’지역 국회의원은 24명뿐임.

<보 기>

- ㄱ. 농지만 보유한 국회의원은 없다.
- ㄴ. 4개 유형의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국회의원은 ‘△△당’ 소속이다.
- ㄷ. 1개 유형의 부동산만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명이다.
- ㄹ. 주택과 대지를 모두 보유한 국회의원은 5명이다.

38. 다음 <표>는 2020 ~ 2023년 ‘갑’국 변호사 시험의 성별 응시자수 및 합격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국 변호사 시험의 성별 응시자수 및 합격자수

(단위: 명, %)

성별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남성	응시자수	14,431	15,605	15,422	()
	합격자수	()	()	12,273	12,222
	합격률	84.0	82.1	79.6	81.0
여성	응시자수	16,300	18,282	()	18,504
	합격자수	()	()	14,309	14,465
	합격률	83.4	79.2	77.1	78.2
전체	응시자수	30,731	33,887	33,984	33,598
	합격자수	25,713	()	26,582	26,687
	합격률	83.7	80.6	78.2	()

※ 합격률(%) = $\frac{\text{합격자수}}{\text{응시자수}} \times 100$

- ① 전체 합격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
- ② 남성 응시자수는 2022년이 2023년보다 많다.
- ③ 남성 응시자수 대비 여성 응시자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 ④ 여성 합격자수 대비 남성 합격자수 비율은 2020년이 2021년보다 높다.
- ⑤ 2022년 전체 합격자수는 전년 대비 3 % 이상 감소하였다.

39. 다음 <표>는 2024년 ‘갑’ ~ ‘정’국의 철도선로 활용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 ‘갑’ ~ ‘정’국의 철도선로 활용 현황

구분\국가	갑	을	병	정
총선로길이(km)	15,100	63,700	27,200	3,900
인구 백만 인당	225	49	151	77
국토면적 천 km ² 당	60	7	51	39
여객수송인원(백만 인)	1,665	1,554	9,091	1,269
여객수송거리(백만 인·km)	66,660	723,006	260,192	40,343
화물수송량(백만 톤)	90	2,294	31	37
화물수송거리(백만 톤·km)	19,000	1,980,061	20,255	9,749

※ 1) 여객수송거리는 여객수송인원에 수송거리를 곱한 값의 합임.
2) 화물수송거리는 화물수송량에 수송거리를 곱한 값의 합임.

<보 기>

- ㄱ.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총선로길이가 길다.
- ㄴ.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일수록 여객수송인원 1인당 여객수송 거리가 길다.
- ㄷ. 화물수송량 1톤당 화물수송거리는 ‘을’국이 ‘갑’국의 3배 이상이다.
- ㄹ. 총선로길이 대비 여객수송거리의 비율은 ‘정’국이 ‘을’국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40. 다음 <표>는 ‘갑’국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세대 현황 및 분위별 세대의 세대원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세대별로 지급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을 산정할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건강보험료 분위별 세대 현황
(단위: 원, 세대, 명)

구분\분위	건강보험료		세대수	총세대원수
	최소	최대		
전체	80,970	3,182,760	25,000	56,750
1분위	80,970	157,150	5,000	11,200
2분위	157,151	187,230	5,000	11,200
3분위	187,231	226,880	5,000	11,450
4분위	226,881	291,940	5,000	11,450
5분위	291,941	3,182,760	5,000	11,450

※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된 금액임.

<표 2> 건강보험료 분위별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른 구성비
(단위: %)

세대원수\분위별 세대	1인	2인	3인	4인 이상
1분위 세대	40	20	20	20
2분위 세대	40	20	20	20
3분위 세대	35	25	20	20
4분위 세대	35	25	20	20
5분위 세대	35	25	20	20

<국민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기준 1) 건강보험료가 226,880원 이하인 세대만 지급 대상으로 함.
- (기준 2)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함.
- (기준 3) 세대별 지급가능 상한액은 40만 원임.

<보 기>

- ㄱ.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3억 원 이상이다.
- ㄴ. (기준 1)만 변경하여 1인 세대는 보험료 187,230원 이하인 세대에만, 2인 이상인 세대는 보험료 226,880원 이하인 세대에만 지급한다면,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1억 5천만 원이 된다.
- ㄷ. (기준 3)만 변경하여 세대별 지급가능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면, 지급대상 4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국민재난지원금 평균은 42만 원이 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